04

배반의 밤이었어

다음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학생들과 믿음의 대화를 나누세요. 일부만 고르거나 전체를 활용할 수 있으며, 아니면 길잡이로만 삼아도 됩니다. 중요한 것은 모든 답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.

성경 본문: 마태복음 26장 36~49, 56, 59~66절

1. 이 과의 '포인트'로 시작하기

'포인트'는 각 과의 성경 공부를 하나로 묶는 주제 문장이고, 전체를 기억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입니다. '포인트'로부터 다양한 대화 주제가 파생할 것입니다. 또는 이 과를 공부하는 동안 새롭게 알게 되었거나 놀라웠던 내용을 질문하면서 시작해도 좋습니다.

4과의 포인트: **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하셨다.**

2. 이 과를 공부하면서 깨닫게 된 바를 고찰하기

위기의 순간이 왔고 어떤 후퇴나 반란, 구조도 없을 것입니다. 예수님은 성경이 예언했던 것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하셨습니다. 그러나 혼돈에 빠져 있던 제자들은 그 밤에 일어났던 모든 일이 예언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히 거하지 못했습니다. 예수님은 아버지의 예정과 계획을 위해 자신을 견고하게 하셨지만, 제자들은 흔들렸고 두려워했습니다. 구약성경의 메시지가 그 밤의 사건을 향해 빛을 비춰 주고 있었음에도 제자들은 어둠에 싸여 그리스도의 사건을 제대로 인식하는 데에 실패했습니다. 이 이야기는 성취되지 않고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고, 그 성취는 머지않았습니다. 하지만 양들은 곧 흩어져 버렸고, 목자는 기꺼이 어두운 골짜기를 가로질러 예루살렘 성으로 나아갔습니다.

- **이 성경 구절은 아버지의 계획을 따르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헌신에 관해 무엇을 말해 주나요?**

3. 대화를 돕는 명언

이 명언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 대화를 나눠 보세요.

"가장 거룩하신 탄원자께서 겟세마네에서 그 잔이 자신에게서 지나가기를 세 번이나 기도하셨습니다.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." C. S. 루이스 C. S. Lewis

4. 대화를 돕는 질문

- 믿는 자들은 자신들이 박해에 직면할 것임을 알았습니다. 이처럼 믿음을 위해 박해를 받게 된다면 그때 우리가 자기 통제를 보여 주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?
-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는 말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. 이 가운데 우리가 수용해야 하는 것과 수용하지 않아야 하는 것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?
- 구약성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하나님과 복음에 관해 회의적인 사람에게 어떠한 진리를 깨닫게 해 주나요?
-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?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?